

화학소재 시장흐름 ②

화학소재 무역수지 “흑자 전환”

한국은행, 반도체 수출 활성화 따라 ... 중국수출 증가가 요인

최근 들어 세계 산업계의 경쟁구도가 완제품 중심에서 부품·소재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부품·소재가 신기술·신제품 창출의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표준(Global Standard) 및 기술선점 노력이 가속되고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이 확산되면서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도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데 힘입어 최근 부품·소재의 국제경쟁력이 다소 높아지는 추세로, 무역수지가 1993년 이후 흑자로 전환된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에는 반도체·TFT-LCD·이동통신기기부품 등 IT관련 부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부품·소재 수출비중(2001)

구 분	미국	중국	유럽	일본	홍콩	타이완	기타
반도체	23.9	2.6	14.1	13.9	10.5	10.6	24.4
전기·전자부품	15.0	17.5	14.9	9.4	6.7	7.1	29.4
기계류부품	28.1	11.5	12.8	13.6	2.2	3.0	28.8
자동차부품	29.1	3.5	15.9	7.2	0.4	3.3	40.6
화학소재	7.9	32.5	12.0	0.2	6.0	4.6	36.7
금속소재	30.0	20.1	6.6	16.2	7.7	4.0	15.4
섬유소재	6.8	19.1	11.5	0.5	12.0	1.4	48.7
합 계	18.6	16.3	12.6	9.2	7.5	6.0	29.8

그러나 완제품 위주의 산업발전 전략을 오랫동안 추구해온 결과 부품·소재 생산기업의 대부분이 영세하거나 전문성이 크게 부족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부품·소재 수출은 1988-2001년 연평균 11.3% 증가해 전체 수출증가율(7.7%)을 크게 상회했다. 그러나 1988-1995년에는 연평균 19.2% 증가한데 비해 1996-2001년에는 연평균 2.1% 증가함으로써 최근 들어 부품·소재의 수출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8년 29.3%에서 1995년에는 47.5%로 크게 높아졌으나, 이후 대체로 45%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수출에서는 반도체, 화학소재가 두드러지고 있다. 반도체 수출은 1988-2001년 연평균 15.9% 증가하면서 전체 부품·소재 수출 비중이 1988년 17.9%에서 2000년 31.7%로 상승했다. 다만, 2001년에는 반도체가격의 급락으로 수출이 하락세를 보였다.

부품·소재 수입비중(2001)

구 분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타이완	기타
반도체	23.1	27.8	7.2	2.8	12.1	26.8
전기·전자부품	28.4	18.2	12.4	17.8	5.8	17.5
기계류부품	30.6	30.0	27.3	4.0	1.3	6.8
자동차부품	46.8	16.8	26.6	1.0	0.3	8.5
화학소재	37.4	19.4	18.9	8.4	2.0	13.9
금속소재	33.1	9.2	18.5	10.0	1.5	27.8
섬유소재	16.4	7.0	14.1	32.2	7.2	23.2
합 계	29.4	20.3	15.0	9.6	5.6	20.0

화학소재는 중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연평균 15.7% 증가했다. 중국수출은 1988년 1억 8000달러에 불과했으나 2001년에는 103억2000달러로 확대되면서 수출비중도 1.0%에서 16.3%로 크게 상승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 수출비중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부품·소재 수입은 연평균 9.0% 증가해 전체 수입증가율(9.9%)을 하회했으며, 특히 1988-1997년 연평균 11.5% 증가하던 것이 외환위기 이후 1998-2001년에는 수출과 설비투자 둔화 등으로 연평균 3.3%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부품·소재의 비중도 1988년 45.4%에서 2001년에는 41.8%로 낮아졌다.

부품·소재 무역수지

(단위: 억달러)

구 분	1988	1990	1993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반도체	-0.2	3	20	86	47	43	48	28	61	-13
전기·전자부품	-21	-20	-12	-3	-14	-17	22	23	-6	3
기계류부품	-23	-34	-41	-65	-69	-56	-20	-28	-27	-17
자동차부품	-4	-3	-5	-8	-5	7	9	8	6	6
화학소재	-31	-28	-7	-5	0	14	38	28	39	33
금속소재	1	-4	2	-43	-45	-31	31	-4	-18	-13
섬유소재	20	27	44	60	64	67	59	54	57	46
합 계	-58	-59	1	22	-23	28	187	109	113	44
전체 무역수지	89	-48	-16	-101	-206	-85	390	239	118	93

주종 수입품목인 반도체, 전기·전자부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는데, 반도체 수입은 1988-2001년 연평균 14.2% 증가하면서 전체 부품·소재 수입비중이 1988년 13.6%에서 2001년에는 26.4%로 상승했다. 전기·전자부품은 중국산 수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연평균 11.5% 증가했다.

<Chemical Journal 2003/12/24>